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12월 21일

제07-51호

[상세 내용]

미국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이 준 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팀장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김 중 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3460-1193)

고 희 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주요 내용

- 200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금융시장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7년 중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신용경색 우려와 겹치면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부각되었음.
- 미 연준은 지난 2007년 9월 18일, 15개월에 걸친 금리동결을 중단하고 정책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4.75%로 인하한 후 12월 11일 다시 4.5%로 인하함.
- 미 연준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신용경색이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07년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세 등의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연율 4.9%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06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미 상무부는 무역수지, 개인소비지출, 민간재고투자, 정부지출 등의 개선에 힘입어 지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잠정치 3.9%에서 수정치 4.9%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함.
- 2007년 물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2008년에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수십 년간 미국경제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지목되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에 이어 2007년 연속 개선되었고, 이는 향후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효과를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미국경제는 주택부문 침체 지속, 서브프라임 사태, 소비지출 감소, 고유가 등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실적 양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모기지 부실 사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라는 긍정적 요인의 혼조 속에 2.0% 전후의 낮은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1. 머리말

- 200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금융시장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7년 중에는 신용경색 우려와 겹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었음.
- 지난 2월 말에는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으로 금융시장이 곧 회복되었으나, 7월에 다시 부각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신용경색을 동반하고 일부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등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금융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켰음.
- 11월 들어서 모기지 투자기관 손실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신용경색 위기가 전체 모기지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대두됨.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신용경색과 함께 주택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미국경제 성장을 큰 폭으로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부각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함께 미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2008년 미국경제를 전망하고자 함.

2. 2007년 실물경제 동향 분석

가. 경제성장 및 물가

- 2007년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세 등의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연율 4.9%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06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미 상무부는 무역수지, 개인소비지출, 설비투자 등의 개선을 반영하여 지난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잠정치 3.9%에서 수정치 4.9%로 1.0%포인트 상향하였음.

- 개인소비지출은 내구재 및 서비스 지출 확대에 기인하여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민간투자는 주택건설투자 감소세가 심화됨에 따라 둔화됨.
- 2007년 미국경제는 지난 2/4분기와 3/4분기 예상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였으나, 4분기에 서브프라임 사태와 주택경기 위축요인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반적으로 추세선 이하의 성장세인 2.0~2.5%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미국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대비 연율, %)

	2004	2005	2006					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3.6	3.1	4.8	2.4	1.1	2.1	2.9	0.6	3.8	4.9
개인소비지출	3.6	3.2	4.4	2.4	2.8	3.9	3.1	3.7	1.4	2.7
민간투자	9.7	5.6	4.3	0.6	-4.1	-14.1	2.7	-8.2	4.6	0.8
(비주거용)	5.8	7.1	13.3	4.2	5.1	-1.4	6.6	2.1	11.0	9.4
설비투자	7.4	9.6	13.0	-0.1	2.9	-4.9	5.9	0.3	4.7	14.3
(주택건설투자)	10.0	6.6	-0.7	-11.7	-20.4	-17.2	-4.6	-16.3	-11.8	-19.7
정부지출	1.4	0.7	4.9	1.0	0.8	3.5	1.8	-0.5	4.1	3.7
(수출)	9.7	6.9	11.5	5.7	5.7	14.3	8.4	1.1	7.5	18.9
(수입)	11.3	5.9	6.9	0.9	5.4	1.6	5.9	3.9	-2.7	4.3

주: 2007년 3/4분기는 11월 29일 발표한 수정치임.

자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 2007년 물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2008년에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표 2.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소비자물가	3.4	0.5 (3.7)	1.2 (4.0)	0.8 (3.3)	-0.5 (1.9)	3.2	0.9 (2.4)	1.5 (2.7)	0.5 (2.4)
근원소비자물가	2.2	0.6 (2.1)	0.8 (2.5)	0.7 (2.8)	0.5 (2.6)	2.5	0.6 (2.6)	0.5 (2.3)	0.6 (2.2)
생산자물가	4.9	0.0 (4.4)	0.9 (4.5)	0.2 (2.9)	-0.8 (0.3)	3.0	1.7 (1.9)	2.4 (3.4)	0.2 (3.5)
근원생산자물가	2.4	0.7 (1.6)	0.5 (1.6)	0.0 (1.1)	0.3 (1.7)	1.5	0.9 (1.7)	0.4 (1.6)	0.5 (2.2)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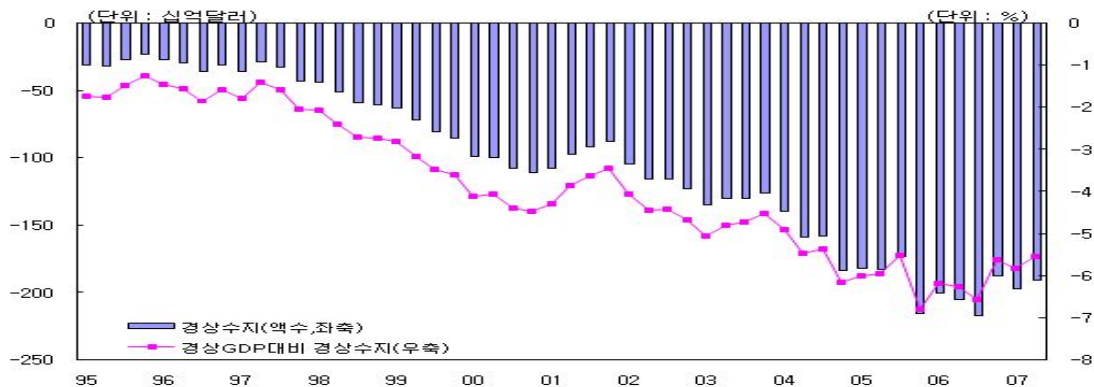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부(2007. 12. 5).

- 3/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기대비 0.5%(전년동기 2.4%)를 기록하였으며, 생산자물가 또한 전기대비 0.5%(전년동기 2.2%) 증가하였음.

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 수십 년간 미국경제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지목되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에 이어 2007년 연속 개선되었음.
-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2006년 3/4분기를 고비로 점차 개선되고 있고, 재정수지 적자 또한 2004년 이후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음.
- 2006년 3/4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축소되기 시작한 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에도 뚜렷한 개선 추세를 나타냄(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 8월 676억 달러에서 2007년 9월 565억 달러로 축소됨).
- 미국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낸 이유는 해외 경기회복에 따른 성장격차 축소, 달러화 약세 지속 등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중 경상수지 적자 또한 지난해 3/4분기 2,173억 달러(GDP 대비 6.5%)에서 2007년 2/4분기 1,908억 달러(GDP 대비 5.5%)로 축소되었고, 이러한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은 향후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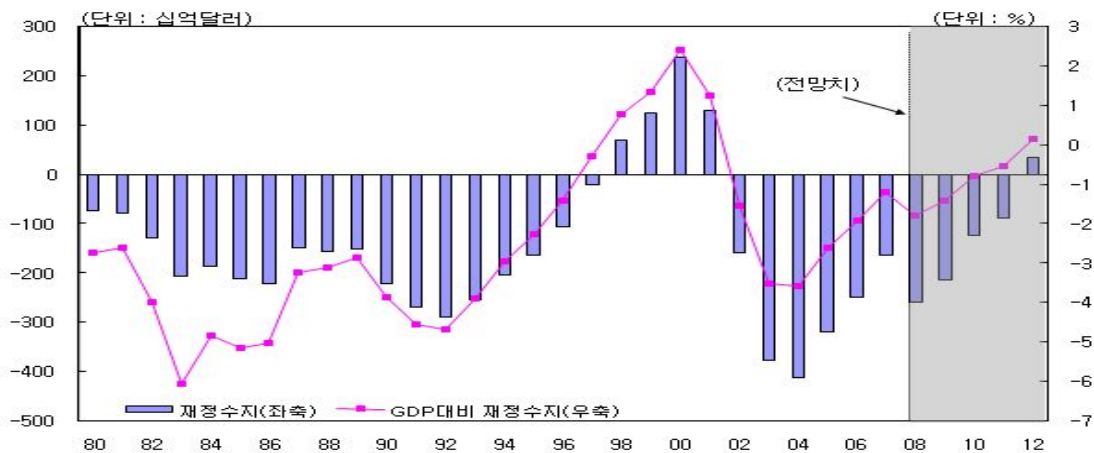
그림 1. 경상수지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2007. 12).

-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10월 11일 '2007 회계연도 재정적자' 를 1,628억 달러(GDP 대비 -1.2%)로 확정 발표함.
-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수입이 4.6% 증가하였고 견조한 고용 증가 등으로 개인소득세 수입이 11.5%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한편 OMB는 2007년 7월 12일 발표한 '2008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를 2,580억 달러(GDP 대비 -1.8%)로 전망하고, 향후 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경 330억 달러(GDP 대비 0.2%)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¹⁾

그림 2. 재정수지 추이



주: 2008년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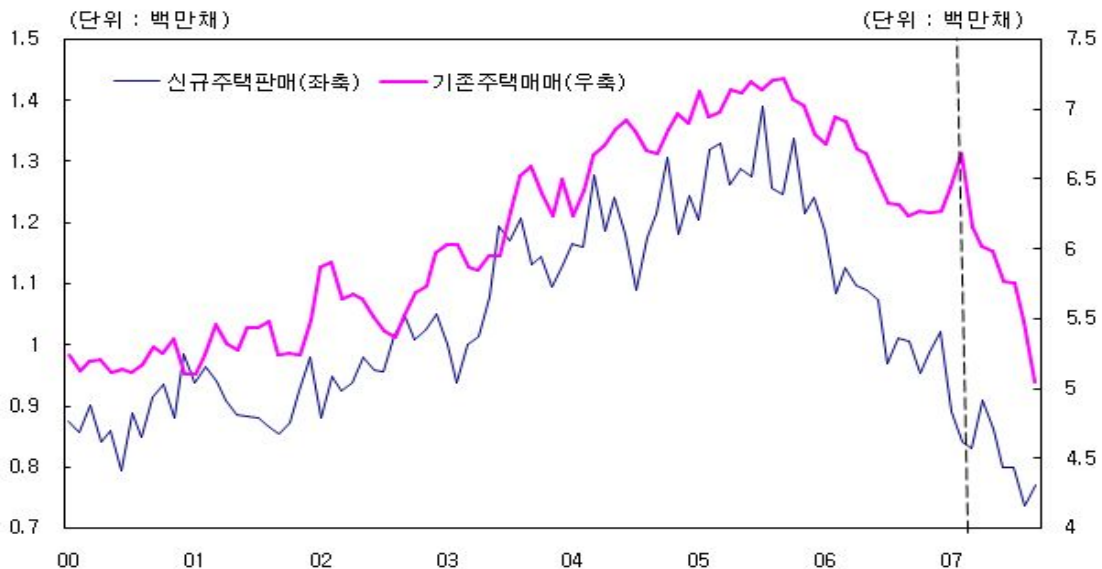
다. 주택시장

- 2006~2007년 미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택경기 위축이었고, 주택가격 하락세는 소비 위축 및 고용 감소 우려와 함께 2008년에도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 버냉키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주택경기 위축이 2008년까지 미국경제 성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연준의 베이지북도 주택판매, 신규주택건설의 감소와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1) 의회예산처(CBO) 또한 2007년 8월 23일에 발표한 재정수지 전망에 대해 2012년에 재정수지가 1,550억 달러(GDP 대비 0.9%)에 이를 것이며,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 4.9%로 예상을 상회하였으나, 주택투자 증가율은 2분기 -11.8%(GDP 성장률 기여도 -0.62%포인트)에서 3분기 -19.7%(기여도 -1.03%포인트)를 보여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 신규 및 기존주택판매 추이



자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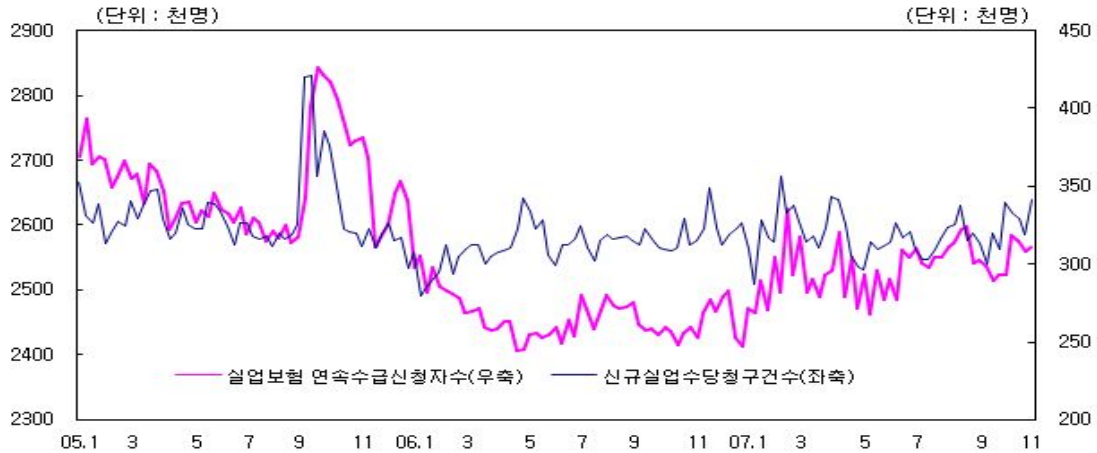
라. 기타 실물경제지표 동향

- 2007년 비농업부문 고용시장²⁾ 동향은 1~5월 월평균 14만 7,000명씩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16만 6,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 고용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 수(2007년 11월 21일 발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각각 256만 6,000명, 33만 건으로 2007년 평균치³⁾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2) 2005년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중에도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임금도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3) 2006년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 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평균은 각각 245만 9,000명, 31만 3,000건을, 2007년 평균은 각각 253만 3,000명, 31만 9,000건을 나타내었음.

그림 4. 실업보험 및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

■ 기타 지표 동향

- 소비자 지출액 추정의 첫 번째 자료인 10월 소매판매(Retail Sales)는 전월(0.7%) 대비 0.2% 증가하였고, 이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소매판매 둔화를 시사함.
- 경기민감 데이터이며 우리나라 대미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10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4%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하락함.
- 10월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은 전월(0.2%) 대비 0.5% 감소함. 이는 9개월 내 최대 감소율로, 이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 부진 등에 기인함.
- 인플레이션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9월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zation)⁴⁾은 82.1%로, 1972~2006년 평균치보다 1.1% 높은 수준을 기록함.
- 10월 경기선행지수(leading economic indicators)는 전월(0.1%) 대비 0.5% 하락한 136.9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심리 위축과 물가상승 전망에 따라 소비심리가 둔화된 데 기인함.
- 10월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2)보다 하락한 50.9을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이는 7개월간 최저수치임.

4) 제조업 설비가동률이 81%이면 평균 수준이고, 83% 이상이면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함.

-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전월(83.4) 대비 하락한 80.9를 기록함. 이는 2006년 5월 이래 최저치로 주택경기 침체 및 고유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표 3. 미국의 실물경제 주요 지표 추이

	%	전월비	전월비	전월비	전월비		
	설비 가동률	산업생산	경기 선행지수	내구재 주문	소매판매	ISM 제조업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2006년 1월	81.1	0	0.3	-6.3	3.3	55.3	91.2
2월	81.1	0.3	-0.5	4.1	-0.8	56.1	86.7
3월	81.4	0.5	0.4	4.6	0.2	55.3	88.9
4월	81.9	0.9	-0.2	-3.8	0.9	56.9	87.4
5월	81.7	-0.1	-0.4	-0.2	0.1	54.7	79.1
6월	82.3	0.9	0.1	3.2	-0.5	54	84.9
7월	82.4	0.4	-0.2	-2.2	1.3	54.4	84.7
8월	82.4	0.2	-0.4	-1.1	0.1	54.3	82
9월	82.0	-0.3	0.4	8.8	-0.6	52.7	85.4
10월	81.7	-0.2	0.0	-8.4	0	51.5	93.6
11월	81.3	-0.4	0.0	2.2	0.3	49.9	92.1
12월	81.6	0.6	0.6	1.5	1.1	51.4	91.7
2007년 1월	81.1	-0.5	-0.4	-6.1	0	49.3	96.9
2월	81.6	0.8	-0.6	0.5	0.6	52.3	91.3
3월	81.4	-0.1	0.6	5.1	1	50.9	88.4
4월	81.6	0.6	-0.2	1.0	-0.3	54.7	87.1
5월	81.4	-0.1	0.2	-2.4	1.6	55	88.3
6월	81.8	0.5	-0.2	1.8	-0.8	56	85.3
7월	81.9	0.6	0.7	5.9	0.6	53.8	90.4
8월	82.1	0.1	-0.9	-5.3	0.3	52.9	83.4
9월	82.1	0.2	0.1	-1.7	0.7	52.0	83.4
10월	-	0.5	-0.5	-1.4	0.2	50.9	80.9

자료: 각 통계기관.

3. 미국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환율

- 달러화는 대부분의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도 글로벌 달러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최근 달러화 추이

구분	2006년 평균	2007년 상반기	2007년 1월 1일	2007년 6월 29일	2007년 9월 28일	2007년 11월 26일
달러/유로	1.2561	1.368	1.3187	1.3505	1.4222	1.484
엔/달러	116.34	119.19	119.03	123.2	114.80	107.50
위안/달러	7.975	7.568	7.809	7.615	7.507	7.398
원/달러	955.5	923.6	930.2	922.6	915.2	929.6

자료: Datastream(2007. 12. 5).

-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추가 인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 아닌 달러화로 차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⁵⁾
- 달러의 평가절하가 200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상품의 수출환경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⁶⁾
-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95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200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7년 10월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4.8로 1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함.⁷⁾

나. 금리

- 미 연준은 지난 9월 18일, 15개월에 걸친 금리동결을 중단하고 정책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4.75%로 인하한 후 12월 11일 다시 4.5%로 인하하였음.
-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주택경기 및 소비 위축으로 미국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신용경색이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8년 미국의 정책금리, 3개월 Libor,⁸⁾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를 각각 3.95, 4.13, 4.56으로 예상하고 있음. 시장에서 정책금리가 지금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최근 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후 최악인 주택시장을 되살리고 신용경색을 완화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5) 블룸버그는 11월 25일 그 규모가 향후 2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도하였음.

6) 미국정부가 GDP의 6%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7) 일본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7년 10월 64.7을 기록함.

8) 은행간 가중평균금리임.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2008년 하반기 미국 금리 전망치

	정책금리	3M Libor	10Yr Treasury
UBS	4.25	4.45	4.50
Bank of America	4.25	4.5	4.8
Merrill Lynch	3.50	3.70	4.45
Lehman Brothers	3.75	3.90	4.55
Goldman Sachs	4.00	4.10	4.50

자료: 투자은행(2007. 12. 5).

다. 서브프라임 사태

- 올해 미국경제 및 세계 금융시장의 발목을 잡은 서브프라임 사태는 모기지 관련 손실 확대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08년에도 미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2007년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의 실적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서브프라임 연체율 상승,⁹⁾ 보유자산 신용등급 하락, 헤지펀드 투자손실, 회계기준 강화¹⁰⁾ 등으로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6. 미국 주요 은행 3분기 실적 현황

(단위: 억 달러)

	부실 상각액	3분기 실적
Merrill Lynch	89	-22.4
Citigroup	60.6	22.0
JP Morgan	16.4	33.7
Lehman Brothers	26	8.9
Goldman Sachs	15	28.5

주: 상각액은 2~3분기 합계.

라. 유가

- 올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1월 초에 비해 60.8% 상승하였음. 두바이유와 브렌트유의 가격도 올해 초와 비교하여 각각 55.9%와 61.6% 상승하였음.

9) 주택가격 하락의 지속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모기지 부실이 심화되고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10) 11월 15일부터 FASB 157 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말부터 Basel II가 도입될 예정임.

그림 5. 2007년 국제 유가 추이

(단위: 달러)



자료 : Bloomberg(2007. 12. 5).

- 2007년 8월 국제유가는 미국발 신용경색에 따른 세계 주요 증시의 급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석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급락하였음. 그러나 10월 이후 주식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원유의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의견과 투기 및 지정학적 긴장이 원인¹¹⁾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
- 미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 OPEC의 증산 가능성 등은 최근 유가 상승을 억제할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석유 재고량에 대한 우려,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OPEC의 유가 조절능력 상실 가능성 등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2008년 미국 경제 전망

- 2007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주요한 위험요인은 고유가, 주택시장 침체,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로 요약됨.
- OECD(2007년 11월 21일)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모기지대출의 금리재조정 규모도 확대되면서 2008년 중 모기지 부실로 인한 손실이 최대 3,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함.
- 이와 같은 모기지 부실의 심각성에 따라 각국은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정부 또한 금융회사들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11) 11월 16일 사우디에서 열린 OPEC 심포지엄에서 OPEC 회원국 각료들은 고유가의 원인을 투기와 지정학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힘.

- 월스트리트 저널(11월 30일자)에 따르면 폴슨(Paulson) 재무장관은 모기지 금융 관련회사들과 한시적 금리동결 방안¹²⁾을 추진하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 2007년 12월 6일 부시 대통령은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간 동결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정부는 주택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함.
 - 동 방안은 2010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변동금리가 인상돼 대출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금리동결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민간금융기관의 모기지를 주선해 주는 리파이낸싱이나 기존의 모기지를 연방주택청(FHA)이 지원해주는 대출로 변경하는 방식이 될 것임.
- 동 방안에 대해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¹³⁾이 있으나, 동 방안이 추진되면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줄어들게 되어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해 보면, 2008년 미국경제는 주택부문 침체 지속, 서브프라임 사태, 소비지출 감소, 고유가 등의 부정적인 요인과 기업실적 약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모기지 부실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라는 긍정적인 요인의 혼조 속에 2.0% 전후의 낮은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과 인도 등의 높은 성장률 지속과 같은 세계경제의 호조 지속 전망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2009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표 7. 주요기관 미국경제 전망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Global Insight	1.9	2.9	2.9
OECD	2.0	2.2	-
IMF	1.9	-	-
평균	2.0	2.6	2.9

주: 전망 시점은 Global Insight(2007. 11), OECD(2007. 12), IMF(2007. 10)임.

- 12) 한시적 금리동결방안은 모기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서브프라임 변동금리는 대출초기 2~3년 동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높은 이자율로 재조정하게 되어 있음.
- 13) 우선 모기지 금리동결 조치의 경우, 금리조정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만큼 부실 예방에는 한계가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 투자자의 잘못을 정부가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